

[P3 - 12]

대학급식소의 운영형태에 따른 이용 실태 및 음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김수현^{1*}, 권순자², 이선영¹

¹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²배재대학교 외식급식경영학부

Comparison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food service in university by management type

Su-hyun Kim^{1*}, Sun-ja Kwon², Sun-yung Ly¹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trition & Food Service Management, Paichai University, Taejeon, Korea

본 연구는 위탁과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학교 식당의 이용 실태, 음식 만족도 및 불만 이유, 가격부문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전, 충남지역의 대학교 중 위탁급식소와 직영급식소 각각 2곳을 선정하여 대학생 504명을 대상으로 학교식당 이용 실태, 음식 만족도와 불만 이유, 가격부문 만족도, 부정수소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49.6%, 여학생 50.4%였다. 전체 87.7%의 학생이 주1회이상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탁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남학생이 직영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여학생보다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주 이유는 '저렴해서'로, 위탁급식소에서는 '시간절약'과 '가까워서'가, 직영급식소에서는 '저렴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맛이 없어서'로, 위탁급식소에서는 '다양하지 않아서'가, 직영급식소에서는 '맛이 없어서'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음식 만족도에 있어서는 밥의 '외관', 김치의 '다양성' 항목에서 위탁급식소의 만족도가 직영급식소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밥의 '양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음식 종류별 불만 이유로는 밥은 '찰기가 없다', 국은 '건더기가 적다', 반찬은 '간이 일정하지 않다', 김치는 '물컹거린다'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밥의 '찰기가 없다', 국의 '싱겁다', '건더기가 적다', '건더기가 많다', 반찬의 '질감이 거칠다', 김치의 '싱겁다', '익지 않았다' 항목에서 위탁급식소와 직영급식소의 불만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는 밥의 '찰기가 없다', 반찬의 '맵다', '간이 일정하지 않다', 김치의 '익지 않았다', '물컹거린다'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격부문 만족도에서는 '현재 가격 만족도', '가격대비 품질 만족도', '고단가 고품질 메뉴 제공시 구입 의향 정도'의 3항목에서 직영급식소의 학생들이 위탁급식소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소 점수는 57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9.77±7.94점이었으며, 위탁급식소가 29.54±7.83점, 직영급식소가 30.03±8.08점으로 비슷했고, 남학생이 26.70±7.13점, 여학생이 32.79±7.55점으로 여학생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부정수소 점수가 높을수록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의 학교식당 이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저렴한 가격이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의 학교식당 이용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소에서는 다양한 메뉴의 제공이, 직영급식소에서는 맛의 개선이 요구된다. 가격부문의 만족도는 직영급식소가 더 높는데 이것은 직영급식소의 식단가가 위탁급식소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단가 고품질 메뉴 제공시 구입 의향 정도'의 점수도 직영급식소가 높아 직영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는 만족하지만 고품질의 식사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으므로 여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식단 개선이 필요하겠다.